

# “시만 붙이면 투자된다?”… 시장 왜곡·신뢰 훼손 우려

## 오늘 AI

스타트업 투자자금, AI 분야 몰리며  
기술력보다 마케팅 강조 사례 증가  
실제 성과 입증기업 ‘옥석 가리기’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쏠림 속에 ‘간판만 AI’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 왜곡과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AI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앞세운 투자 유치와 신사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실체보다 ‘AI’라는 이름에 기대는 이른바 ‘AI 워싱’ 우려가 커진다.

특히 투자와 관심이 AI 분야로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기술력 검증보다 ‘AI 간판’이 앞서는 흐름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AI



최근 인공지능(AI)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간판만 AI’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AI워싱’을 경고하는 이미지.

관련 기업에 자금과 관심이 집중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AI를 붙이지 않으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순 자동화 기능이나 규칙 기반 시스템, 기존 챗봇 수준

의 서비스까지 ‘AI 기반’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투자 판단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익 모델과 기술 완성도가 핵심 평가 요소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AI

적용 여부’가 사실상 1차 판단 기준처럼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술력보다 마케팅 요소가 부각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투자자들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진짜 AI와 기능 확장을 포장한 수준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 검증보다 ‘AI 서사’가 앞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AI 중심으로 투자 기준이 재편되며 ‘비AI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AI 워싱’은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만 부풀려질 경우 향후 투자 회수 단계에서 조정

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최근에는 ‘AI를 한다’는 설명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활용 방식과 기술 구현 수준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AI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 요소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라며 “문제는 일부에서 기술 고도화보다 ‘AI라는 표현’을 어떻게 붙일지에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결국 시장이 한 차례 옥석 가리기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성과와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현재의 ‘AI 워싱’ 흐름도 점차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전화번호 담긴 IMSI… LGU+ 보안 도마위

(가입자 식별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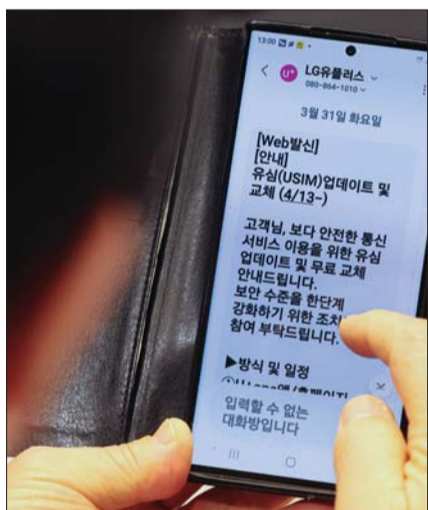
SKT·KT는 난수 기반 체계 적용  
보이스피싱 등 악용 가능성 제기  
유심 교체·업데이트에도 논란 커져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실제 전화번호를 포함해온 구조가 드러나며 보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심 교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적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IMSI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LG유플러스가 2011년 LTE 도입 이후 약 15년간 가입자 식별번호에 고객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온 구조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과 KT가 예측이 어려운 난수 기반 체계를 적용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 IMSI는 국가코드(45)와 통신사코드(06) 뒤에 전화번호가 결합된 형태였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방식이 국제 표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실제 해킹이나 유심 복제에는 추가 인증 정보가 필요해 위험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G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당시에는 보안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시내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고객이 유심 안내 문자를 보고 있다. /뉴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취약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과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은 기술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LTE 스키마를 활용해 특정 LG유플러스 단말 위치를 추적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운동장과 건물 내부 단말 위치를 식별했으며, 전화번호 기반으로 IMSI 신호를 포착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다만 김 교수는 해당 시연이 특정 통신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동일 기지국 내 단말 재부팅 시에만 확인 가능한 등 기술적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15일에는 깃허브(GitHub)에 익명의 보안 전문가가 IMSI 캐처를 활용해 인근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수집하고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공개한 영상이 게시됐다.

그는 “한국의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표적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심지어 물리적 위치 추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취약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MSI가 전화번호와 유사한 식별력을 가질 경우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IMSI가 고유식별 정보가 아니라는 LG유플러스 측 주장과 상충된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목적을 초과한 정보 활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치 추적은 IMSI 캐처 장비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며 “난수 기반 대비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모델 기술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력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 방향을 구체화했다.

회사는 대규모 모델 경쟁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 AI 개발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월드모델 연구는 대규모 인프라 없이도 최적화된 학습 구조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는 인프라 제약이 있는 아시아 국가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최빛나 기자

## 피지컬AI협회,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

정부 R&D 과제 참여

한국피지컬AI협회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제1차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내 피지컬AI 표준전문연구실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전담하는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피지컬AI협회가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약 8년이다.

과제는 피지컬AI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의제 선점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기술 규격 중심을 넘어 실제 산업에서 작동하는 실행형 AI 구조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화 그룹 신설, 의장단 수임, 국제 표준 제안과 승인, 기술 개념증명, 산업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표준 전략을 추진한다.

/최빛나 기자

ITU-T,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와 연계해 인지·판단·행동으로 이어지는 피지컬AI 구조를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확장한다. 문서 중심 표준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표준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연구부터 실증, 산업화, 제도 개선까지 연결해 표준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한국피지컬AI협회는 산업 현장의 활용사례를 수집해 국제표준 의제로 구조화하고 글로벌 논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술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표준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희 표준협회 의장은 “이번 과제는 피지컬AI 작동 방식을 글로벌 공통 언어로 정의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현장 기반의 표준 의제를 주도해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 NC AI, 2개 개발은행서 산업형 AI 공개

글로벌 시장 확장 방향 구체화

산업특화 AI 기업 NC AI는 지난 17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원에서 열린 글로벌 워크숍에 초청받아 자사 기술과 비전을 발표했다.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DB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아시아 주요국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했다.

NC AI는 ‘이노베이션 위드 NC AI’를 주제로 산업 도메인 데이터와 공정 프로세스를 반영한 풀스택 AI 솔루션을 소개했다. 제조, 국방, 유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효율을 높인 사례를 기반으로 범용 AI의 한계를 넘어선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피지컬 AI와 월드

## 과기부, 자체 ‘에이전틱 AI’로 행정 혁신

업무 자동화로 효율성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에이전틱 AI를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개발팀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AI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당 팀은 AI 정책·산업 관련 부서 인력으로 구성돼 실제 업무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첫 결과물로는 글로벌 AI 산업·기술 동향과 주요 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수집·분

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해당 서비스는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서 요약, 법안 검토 지원, 출장 정산, 회의록 작성 등 반복적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 관련 세미나와 협업 도구 도입 등을 통해 업무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전 직원 대상 AI 개발·활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